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19절



2026 새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말씀 리뷰

글 | 이다니엘 전도사, 박은진 집사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담임목사님, 더드림교회 엄요한 담임목사님, 그리고 장진규 담임목사님께서 매일 새벽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어 4월 5일 부활주일에는 장진규 담임목사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고난주간부터 부활주일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 첫째 날 2026년 3월 30일 (월)

“십자가의 약속” [눅23:39-43] 설교자: 원종선 목사님 | 가슴뛰는교회 담임

십자가의 약속은 오늘을 향한 약속, 함께하심의 약속, 그리고 값없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 삶에 임하는 은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공로나 선행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약속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동행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 둘째 날 2026년 3월 31일 (화)

“우리는 모두 목마르다” [요4:7-15] 설교자: 원종선 목사님 | 가슴뛰는교회 담임

영혼의 목마름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갈증입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통해 사랑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돈과 성공, 쇼핑, 관계, 타인의 인정 등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시뿐이며 결국 더 큰 허무와 결핍을 남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심으로 우리의 죄와 영적 갈증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어떤 현실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는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 셋째 날 2026년 4월 1일 (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소망” [히 12:1-3] 설교자: 장진규 담임목사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소망은 고난의 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 너머에 있을 구원과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 자체에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준비하신 소망과 기쁨을 바라볼 때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 넷째 날 2026년 4월 2일 (목)

"고난 속에 감춰진 비밀" [히 12:1-2] 설교자: 엄요한 목사님 | 더드림교회 담임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감춰 두신 은혜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당하셨듯 믿음의 선배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고난보다 그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 다섯째 날 2026년 4월 3일 (금)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십자가" [눅9:51-56] 설교자: 장진규 담임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과 제자들의 분노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순간의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십자가 뒤에 있을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셨기에 모든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감정에 머무르기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고 순종할 힘을 주며,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여섯째 날 2026년 4월 4일 (토)

"복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롬1:2-4] 설교자: 장진규 담임목사님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기억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부활주일 2026년 4월 5일

"지금, 부활을 살다" [요11:39-44] 설교자: 장진규 담임목사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킨 결정적인 승리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잊지 않을 때 죽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세워지는 믿음

글 | 김한태 장로

매년 새로운 은혜를 얻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시간, 올해는 특별히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가슴뛰는교회의 원종선 목사님과 더드림교회의 엄요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 장진규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큰 은혜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는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는 큰 감동과 소망이 되었으며, 누구나 삶 속에서 목마름과 갈증을 경험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 다시 한 번 생명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추구하기 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채워지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다짐하면서, 특별히 십자가가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라는 말씀처럼, 모든 새순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섬기며...

글 | 고창환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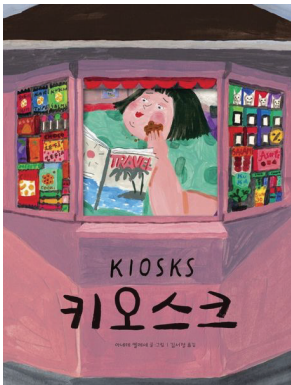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난', 제게는 시련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제 마음에는 성경 구절 중 한 구절이었지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부모님께서 저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키워주신것,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유로운 청소년기를 보낸 시간, 어린 나이에 사업의 길로 이끌어주시며 세상의 어렵고 힘든 시련을 겪게 하신 것까지...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이끌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평촌새순교회에 입교한 후, 제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한편으로 부모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제게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며, 주신 약속을 마음 속에 새기며 복음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동화 『키오스크』를 읽고...

글 | 서지혜 권사

* 영어 kiosk는 초콜릿, 음료, 신문, 잡지 등을 창문을 통해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뜻한다



글·그림 | 아네테 멜레세

‘정글’이라고도 부르는 학원가에서 나는 꼬박 만 15년 동안 학원을 운영했다. 2년여의 유학생생활까지 녹여내고 돌아온 나는, 마치 전장을 잘 치르고 귀환한 장수 같다고 스스로 조금은 잘난 척을 해본다. 어느 날, 나에겐 동생이지만 마음 씀씀이는 언니 같은 우리 목장의 한 권사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예쁜 카드와 함께 곱게 포장된 책 꾸러미를 선물해 주셨다.

“어머, 이게 뭐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동화책이었다. 농담 같은 권사님의 선물에 빙그레 웃음이 터졌고, 나는 단숨에 책을 읽어 내려갔다. 겉표지부터가 나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좋아하는 인디핑크 벽과 보라색 창틀, 빨간 어닝이 달린 키오스크. 그 안에는 나와 닮은 통통한 여자가 침대 위에 누워 초코 쿠키를 들고 여행 잡지를 보고 있었다.

주인공 올가는 나와 참 많이 닮아 있었다. 올가는 단골손님이 무엇을 살지 말하지 않아도 척척 내어주고, 나 역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재와 상담을 자연스럽게 건넨다. 하루를 마치면 올가는 여행 잡지를 펼치고, 나는 여행지를 검색하며 작은 행복을 누린다. 그리고 우리

둘 다 꼭 가 보고 싶은 곳이 있다. 붉은 노을이 물든 해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모래사장. 올가도, 나도 그곳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올가는 과자를 훔치는 아이들을 막으려다 그만 키오스크가 뒤집히고 만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올가, 어떡하지?’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며 다음 장을 넘겼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올가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인생의 기쁨은 함께 나눌 사람이 많지만, 힘든 시간은 유난히 혼자 견뎌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잠시 당황했을 뿐, 올가는 금세 마음을 추슬렀다. 문득 올가의 MBTI가 궁금해질 정도였다. 뒤집힌 키오스크를 다시 세워 보니, 그것은 더 이상 고정된 공간이 아니었다. 움직일 수 있는 키오스크. 어디든 갈 수 있는 키오스크였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올가의 잘못도 아닌데 다리 위에서 만난 강아지의 엉뚱한 행동으로 키오스크와 함께 강물에 빠지고 만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올가를 보며 나는 내 삶도 떠올렸다.

나 역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뜻밖의 어려움을 겪었고, 억울함과 분함을 삼키며 시간을 견뎌야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올가는 달랐다. 바다에 이를 때까지 물결에 몸을 맡기고 조용히 흘러간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용기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올가의 키오스크는 늘 꿈꾸던 노을진 바닷가에 닿는다. 강물에 떨어진 키오스크는 사흘 밤낮을 떠다니다 큰 파도에 밀려 그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그 시간을 홀로 견뎌낸 올가를 떠올리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나는 끝내 행복에 닿은 올가에게 마음 다해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다. 이제 저녁이면 올가의 키오스크는 붉고 황홀한 노을로 가득 찬다. 침대 위에 누워 다음 여행을 꿈꾸는 올가의 얼굴도 노을빛으로 곱게 물든다.

그나저나 키오스크 안에 올가 혼자서도 꼭 차 있는 걸 보니, 올가도 나도 다이어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하.

어쩌면 이번 여름휴가에는 나도 그 행복한 올가를 꼭 만나고 올 것만 같다. 사랑하는 한 권사님 덕분에, 오늘은 봄비를 맞은 듯 오래도록 촉촉해진 나의 봄밤이었다.



세대가 하나 되어 즐긴 ‘어썸, 어린이주일 올림픽’

글 | 박은진 집사

지난 5월 3일 주일에배 직후 평촌새순교회 내부 곳곳은 잠시 ‘평촌새순월드’로 변신했습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아 ‘어썸(어린이주일 올림픽)’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어린이들만 즐거웠던 건 아닙니다.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과 어른들까지, 온 성도가 함께 웃고 즐겼던 그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머~~” “우와~~” “까아~~” 이 소리는 용인의 테마파크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평촌새순교회 2층과 예찬실 등 교회 내부 곳곳에서 들려온 기쁨의 감탄사입니다. 사실 어린이주일 행사는 교회 밖 숲길과 마당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니다. 하지만 당일 오전부터 내린 비로 모든 프로그램은 교회 안 곳곳으로 옮겨졌고, 준비된 손길들은 순식간에 새로운 공간을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모든 다음세대가 함께한 이번 어린이주일은 예배 후 교회 곳곳에 마련된 체험부스와 먹거리 코너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와 청년부, 성도들까지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세대가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 것은 예배 광고시간에 공개된 홍보영상이었습니다. ‘어린이주일 올림픽’의 줄임말인 ‘어썸’을 알리기 위해 교역자들이 직접 파격적으로 유쾌한 연기에 나섰다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성도들의 웃음과 아이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날의 즐거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 교역자들과 부장교사, 각 부서 교사들은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행사 주제와 프로그램 구성은 물론 현수막 하나까지 함께 고민했고, 각 부서가 직접 체험부스를 기획하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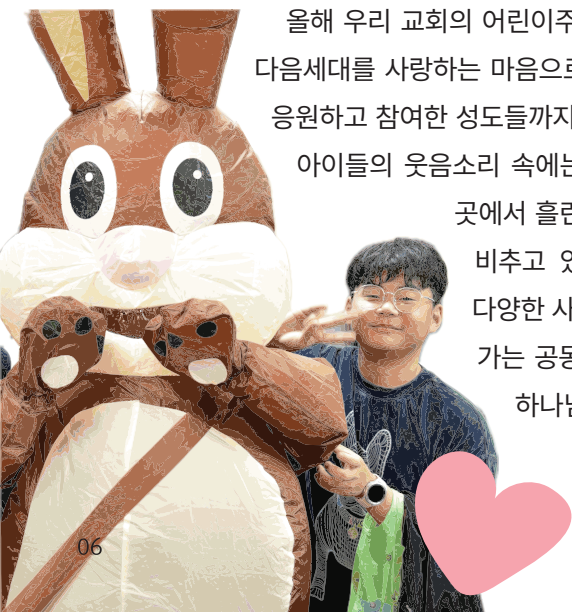
체험부스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단체줄넘기, 림보, 포토존 등 연령별 눈높이에 맞게 마련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팝콘과 슬러시,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먹거리 코너가 마련됐고, 인형탈을 쓴 청년들은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팝콘 기계와 슬러시 기계를 직접 대여해 오는 등 작은 부분까지 정성을 기울인 준비가 돋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이날 어린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포토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됐습니다. 인형탈을 따라다니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 중고등부 학생들이 동생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뛰어 노는 모습은 바라보는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즐기던 유·초등부 여학생들은 “야, 진짜 재밌다!”며 종종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김선호 목사는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교사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각 부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청년들 역시 다음세대를 위한 섬김에 동참했다.”라며 어린이들의 즐거운 마음, 그 하나를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함께 회의하며 준비한 시간 자체가 은혜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어린이주일은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 교사와 청년들, 함께 응원하고 참여한 성도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 낸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는 다음세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많은 이들의 땀방울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평촌새순교회는 앞으로도 다음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며 모든 세대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역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연합의 경험, 새순 한마음 축제

글 | 조규라 집사

우리 교회의 힘찬 에너지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신나는 한마당, '2026 평촌 새순 한마음 축제'를 앞두고 여느 때처럼 각 팀의 명단이 게시됐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팀 분배를 보고는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랑팀'과 '소망팀'의 두 팀으로 나뉘어져 게시된 명단에서는 일부 가족들이 서로 다른 팀으로 배정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올해 한마음 축제는 가족 중심의 팀 구성이 아닌 목장 중심의 팀으로 구성되어, 목장 식구들과 끈끈한 결속력을 다지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5월 23일, '2026 평촌 새순 한마음 축제'가 의왕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축구장 입구에 마련된 접수대에서는 양 팀을 구별하는 주황색(사랑팀)과 연두색(소망팀) 팀조끼가 배부됐고 넉넉하게 담긴 개인 간식패키지가 제공됐습니다. 오전 9시 개회예배로 공식적인 축제가 막을 열었고, 지구볼 모양의 대형 에어볼을 굴리는 단체협동 경기인 '지구를 정복하라', 소그룹 협동경기인 '4인 기차 릴레이', 봉에 매달린 원송이를 바나나로 맞춰 떨어뜨리는 단체협동 게임 '원송이탈출대작전', 대형 에어볼을 타이밍에 맞게 많이 튕겨야 하는 '황금알 던지기' 등 신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에어바운스 구멍을 통과하는 '장애물 통과 게임' 중 열정적으로 참여하던 중고등부 강건욱 학생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염려했지만 다행히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모든 교인이 가슴을 쓸어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함박웃음을 터트리는 일들이 축제 곳곳에 있었는데, 특히 '에어사다리 줄다리' 순서에서 두 번이나 상대팀 선수들을 갈아치우고 연승하던 소망팀 선수 두 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 팀에서 각각 2명의 여자선수들이 출전했는데 소망팀의 오여나 집사님과 이진희 집사님이 순식간에 첫 상대였던 사랑팀의 신민영 집사님과 김효진 성도님을 이겼고, 이후 두 번째 상대였던 성문주 권사님과 유혜주 사모님도 가볍게 이겼습니다.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 세 번째 상대였던 송미리, 한영주 집사님에게 패했지만 초반 소망팀의 연승에 충격을 받은 성문주 권사님께서서는 "나 너무 굴욕이잖아! 힘으로 진 적이 없었는데!"라고 말해 모두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주셨습니다. 축제 마지막에는 각 팀에서 10대 이하부터 60대까지의 남녀 선수들이 참여한 이어달리기가 열렸고 초반부터 앞서던 소망팀을 사랑팀이 역전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날의 축제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각종 물품들을 실어 나르고 현장에 배치하는 일, 교회와 인덕원역으로의 셔틀 운행, 접수,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는 점심식사, 시원한 얼음물을 포함한 간식, 선물포장, 청소와 정산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섬겨주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마음축제는 별다른 승자 없이 행운권 추첨을 통한 선물잔치로 마무리됐습니다. 폐회 기도에서 장진규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오늘의 기쁨처럼 우리 평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기도해주셨습니다.

호탕한 성도님들의 웃음소리가 여운으로 남는 이번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영광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순 한마디 인터뷰



"성도님들의 넘치는 활력 속에서 공동체의 진정한 기쁨과 연합을 경험한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장진규 목사님 -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주셨기 때문에 치료를 마친 모습을 보여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서 다시 축제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기도, 그리고 저도 잘 견딘 덕분에 당일 한마음 축제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걱정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강건욱 학생 (중고등부) -



올여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모험

글 | 김예진 집사

여름방학이 다가오며 우리 다음세대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서 잠시 분리되어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을 받으며, 믿음의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와더불어 최근 국내선교 일정을 마친 청년부는 두 곳의 시골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여름사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세대를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기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 귀한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날짜	장소	주제
영유아부	7/11 - 7/12	영유아부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유치부	7/11 - 7/12, 7/19	유치부실	
유초등부	8/2, 8/7 - 8/8	제삼수양관 [원주]	
중고등부	7/24 - 7/26	온누리수양관 [횡성]	길을 알다, 길을 걷다
청년부	7/3 - 7/5	동강교회 [정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교회소식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글 | 최미영 집사

진솔함과 소박함이 매력이었던 우리 교회는 뜨거운 열정과 활력 있는 에너지를 가진 교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예배와 공간의 재구성 등 교회 구석구석, 크고 작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에 새순교회 성도님들과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변화된 모습을 같이 공유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일 반주 세션팀이 바뀌었습니다~~!

반주팀의 든든한 기둥 오여나 집사님의 메인 건반 외 선율에 색을 입히는 세컨 건반 조민정 자매, 비트 천재 드럼 조민우 형제, 마음을 울리는 베이스 조용준 형제, 화려함의 극치 일렉 경주현 형제까지... 멜로디에 날개를 달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갑절로 풍성해진만큼 귀한 일꾼인 청년들의 봉사에 아낌없는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여러 공간들을 새 단장하였습니다~~!

사랑동이 아가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부모님과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수유실을 재탄생시켰고, 교회 구석구석 페인트칠을 하여 깔끔하게 정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묵상 잘하고 계신가요?

전교인이 한 마음으로 같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온전히 녹여내는 Quiet Time!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 그러나 혹여 잠시 멈추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Fly~ Fly~ 앞으로도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데 더욱 매진하는 평촌새순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새순! Fighting~~!